

■ 고사성어 ㉔



연목구어 (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 곧 ①도저히 불가능한(가당찮은) 일을 하려 함의 비유. ②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함의 비유. ③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못함의 비유

전국시대인 주(周)나라 신정왕(愼靚王) 3년(B.C. 318), 양(梁)나라 혜왕(惠王)과 작별한 맹자(孟子)는 제(齊)나라로 갔다. 당시 나이 50이 넘는 맹자는 제후들을 찾아 다니며 인의(仁義)를 치세의 근본으로 삼는 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을 유세(遊說) 중이었다.

동쪽의 제나라는 서쪽의 진(秦)나라, 남쪽의 초(楚)나라와 함께 대국이었고 또 선왕(宣王)도 역량있는 명군이었다. 그래서 맹자는 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왕도정치가 아니라 무력과 책략을 수단으로 하는 패도정치(霸道政治)였으므로, 선왕은 맹자에게 이렇게 청

했다. “춘추시대의 패자(霸者)였던 제나라 환공(桓公)과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패업(霸業)에 대해 듣고 싶소.” “전하께서는 패도에 따른 전쟁으로 백성이 목숨을 잃고, 또 이웃나라 제후들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시옵니까?”

“원하지 않소. 그러나 과인에겐 대망(大望)이 있소.” “전하의 대망이란 무엇이옵니까?” 선왕은 웃기만 할 뿐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맹자 앞에서 패도를 논하기라 속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집짓 이런 질문을 던진 선왕의 대답을 유도했다.

“전하,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이, 아니면 아름다운 색이 부족하지기 때문이옵니까?” “과인에겐 그런 사소한 욕망은 없소.” 선왕이 맹자의 교묘한 화술에 끌려



由江 權丞世

경북 영주생 경교공파 34세 H-P: 010-5483-7511 E-mail: ykks77@naver.com -악곡-  
• 개인전: 초대그림전 2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2회(부문 생사화문 부문)  
• 대한민국미술대전 1회(부문 초·중·고 부문)  
•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영남미술협회 이사장  
• 유망세대연구회 회장

들자 맹자는 다그치듯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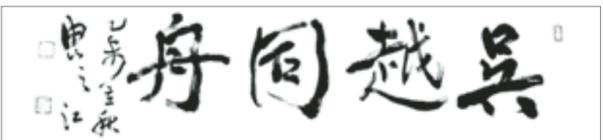
“그러시다면 전하의 대망은 천하통일을 하시고 사방의 오랑캐들까지 복종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옵니까? 하오나 종래의 방법(무력)으로 그것(천하통일)을 이루려 하시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과 같사옵나이다.”

“잘못된 방법(무력)으로 목적(천하통일)은 이룰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선왕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토록 무리한 일이오?”

“오허려 그보다 더 심하나이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일은 물론 기만 구하지 못할 뿐 후난(後難)은 없나이다. 하오나 패도를 좇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옵나이다.”

선왕은 맹자의 왕도정치론을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한다.



오월동주 (吳越同舟)

적대(敵對) 관계에 있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뜻. 곧 ①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끼리 같은 장소·처지에 놓임. 원수끼리 함께 있음의 비유. ②적의를 품은 사람끼리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도움.

<손자(孫子)>라는 책은 중국의 유명한 병서(兵書)로서 춘추시대 오나라의 손무(孫武)가 쓴 것이다. 손무는 오왕(吳王) 합려(闔閭)때 서쪽으로는 초(楚)나라의 도읍을 공략하고, 북방의 제(齊)나라와 진(晉)나라를 격파한 명장이기도 했다.

<손자>×구지편(九地篇)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다.

“병(兵)을 쓰는 법에는 아홉 가지의 지(地)가 있다. 그 구지 중 최후의 것을 사지(死地)라 한다. 주저없이 일어서 싸우면 살길이 있고, 기가 꺾여 망설이면 패망하고 마는 필사(必死)의 지이다. 그러므로 사지에 있을 때는 싸워야 활로(活路)가 열린다.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필사의 장(場)에서는 병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한 장수의 용병술(用兵術)은 예컨대 상산(常山)에 서식하는 솔연(率然)

이란 큰 뱀의 몸놀림과 같아야 한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날아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덩벼든다. 또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덩벼든다. 이처럼 세력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옛부터 서로 적대시해 온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 같은 배를 타고 [吳越同舟] 강을 건넌다고 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 한다면 오나라 사람이 나 월나라 사람은 평소의 적개심(敵愾心)을 잊고 서로 왼손·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위가 있거나 단단히 붙들어 매고 비위를 땅에 묻고서 적에게 그 방비를 과과당당하지 않으려 해봤자 최후의 의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의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필사적으로 하나로 뭉친 병사들의 마음이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㉑ 박태기나무

■ 靑南 權寧漢 (안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 깊어 가는 가을에, 봄에 붉게 피는 박태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붉꽃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 아쉬워, 쓸쓸한 가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붉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해를 겪어 봐도 가는 계절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가는데, 오는 계절은 늘 이처럼 요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새로운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는 듯 온갖 벌레들은 온밤을 지새워 목놓아 울어댑니다.

무슨 일로 벌레들은 가을이 그렇게 슬퍼 한밤을 지새워 울어대는지 듣는 이의 가슴 또한 애통하기만 합니다. 시원하기보다는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불어오는 바람에 한 잎 두 잎 낙엽 질 때면 우리에게 가슴도 텅 비어가는 듯 깊은 사색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세상을 초연히 살던 옛 선현들도 가을이 되어 뜰 앞에 심어둔 오동나무의 그 큰 잎이 쿵하고 땅에 떨어질라치면 가는 세월의 빠름에 깜짝 놀라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뜰 앞에 오동잎이 지는 가을을 보고 많은 가을 시를 읊었는지 모릅니다.

봄은 텅 빈 천지에 만물을 자꾸 채워주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꼭

차있던 천지가 자꾸 비어 가는, 유에서 무로 옮겨 가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에 풍성한 온갖 곡식들이 거두어 들여지고, 울창하던 숲의 나뭇잎들이 모두 낙엽져서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기 시작하는 변화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오직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뿐인가 합니다. 우리를 눈앞에 급변하는 현상 세계가 어떻게 변화든 마음먹기에 따라서 늘 한결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동양 사람들의 정원은 계절의 변화에 초연한 송백류나 수석, 그리고 천년 묵은 녹각으로 꾸민 것도, 변하는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우주의 근간이고 또한 우주의 참모습이라고 해서 금방 보기에 아무런 색감이 없고 재미없는 듯한 것들만 모아서 사랑하고 즐겨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경에도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색상계는 모두 공허함이고, 공허함이란 또한 색상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어려운 말입니다. 가을은 일년 중에서 가장 우리의 이성을 맑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하는 사색의 계절이니 위에 말한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라도 지금 낙엽이 지려고 하는 박태기나무 가지마다 봄이 그토록 정겹게 봤던 붉은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박태기나무는 중국이 원산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아주 오래 전 이어서 그 연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흔히 관상용으로 심고, 높이는 2-5m쯤 자라며 잎은 하트 모양이며 가지에 어긋나게 붙습니다.

꽃은 이른봄에 잎이 피기 전에 피는데, 그 선명하고 고운 연분은 색깔은 개나리의 노랑과 조화되어 봄동산을 온통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꽃 피기 전에 부풀어 오른 꽃봉오리는 더욱 앙증스럽고, 한 꼬투리에 10개에서 22-30개 정도 뽕뽕이 들어박힌 꽃망울은 붉은색 박태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열대 꼬투리는 아카시아 꼬투리처럼 생겼는데 8, 9월경에 익으며 지금도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한 꼬투리에는 보통 2-5개의 종자가 들어 있고, 대량으로 번식시킬 때는 이 종자를 심으면 씨이 돌아옵니다. 목재는 연한 녹색이고, 소방목이라고 하며 한약재로 쓰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봄에 피던 박태기를 보며 우리네 마음속에서 지금 아직까지가 아련이론 피어오르는 그때의 붉은 꽃을 피워 보는 것도 우리마음을 더 여유 있게 갖는 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호기심

누구에게나 호기심은 있다. 사람은 물론이고 웬만한 동물에게는 호기심이 없게 마련이다. 나는 비교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젊었을 때에도 그랬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얼마 전에 모 비구니 스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상대가 고승이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다. 나의 질문이 연속되었다.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되어 “주책없이 물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던니 웃으면서 대답한다. ‘나이 들게 되면 어린이가 됩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와 똑같은 이야기였다. 나이 들면서 내 자신이 어린이 같이 되어간다고 나도 가끔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어서 나는 더욱 흥겨웠다.

63세라는 여승의 출가동기가 우선 궁금하였다. 10대 후반에 출가하였다면서 물론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옛날 학생시절에 충남 수덕사(修德寺)의 주지 일엽(一葉) 스님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일엽 스님은 아주 재미있게 자신의 출가이야기를 해주었다. 연에도 해봤고 여러 세상사에 겪었다고 하였다. 고된 끝에 출가를 결심했다고 하였다.

이번에 만나 뵈는 스님은 출가동기가 단순하였다. 어릴 때 출가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며, 자신의 결심을 실현시켰을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언젠가 의중손자 앞에서 파리를 잡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물던 어린이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파리를 잡나요?’ 질문을 받고 다소 당황하였다.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했었다. 이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대답이었다. 옛날 어느 고승이 개미가 신발에 깔려 죽을까봐 길을 걸을 때 상당히 주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지만 사람에게 유해한 생물에 대한 살생문제는 간단치 않다.

어린이들의 물음에 난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이 많은데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한 지식이나 실력이 어른들에게 없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요사이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 폰 특히 iPhone 4S나 아이폰 시리즈 등에 대하여는 지식도 없고 활용할 줄 모른다. 증손주들이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내가 현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구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비재이다. 사용하는 말에도 신·구세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문제해결은 구세대 사람들이 신세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에 있는 것인데 이 일이 쉽지 않다.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없으니 답답하다.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호



기심이나 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에는 호기심이나 품이 점점 많아진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IT 분야에 대한 호기심은 도저히 충족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포기하고 말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증대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나 경향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령자에게 이러한 욕심이 없다면 희망이나 꿈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호기심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문화를 만들어 왔고 문명을 개척해온 것은 모두가 호기심 덕분이다. 호기심이 없는 데에는 발전이나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호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주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도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자그마한 개인의 생각이나 계획도 호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젊은이도, 젊은이도 호기심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전이 자취를 감춘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호기심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가 예상 외로 많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노령층이 많으면 말할수록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 얼마 전에 나는 “Old boys! Be ambitious, 오르신나이시어! 꿈을 가집시다”라는 에세이집을 썼다(신광출판사, 2009). 요사이도 이 슬로건은 나의 인생 motto의 하나이다.

■ 기행

옛집과 할머니

■ 권오진



서울 용산의 삼각지역 1번출구 뒷골목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숫집이 있습니다. 달걀 탁자 4개뿐인... 주인 할머니

는 25년 전 한결같이 연탄불로 진한떡갈 밀치국물을 우려 내 그 밀치국물에 국수를 말아줍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천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진 대로 무한 리필.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담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죠. 그러나 가는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고,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 할머니 국숫집에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 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이 사람은 뱃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도망가던 그 남자는 그 배려 깊은 말이 맘에 걸려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파파라이에

서 성공한 그는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얘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중매 요구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던 건국일하던 남편은 마흔 한살이 되던 때 4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고생이 심해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 놓고 4남매랑 같이 죽을까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던 차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 불을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침연 설이고 불고하던 국수를 노력 끝에 은근히 밥새 끓인 할머니 특유의 다식물로 국수맛을 내서 새벽부터 국수를 팔았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 학생,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하니 이 국수가 중생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라고 아침 눈을 뜨면 기도한다고 합니다. 테이블과 좌 대 개로 시작한 국수집이 지금은 조금 넓어져 궁궐 같이 감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은 밤이면 이 할머니의 침대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일하던 아줌마를 데려

신간안내

권도갑 교무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발간

권도갑 원불교 교무 원광디지털대학 외래교수가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란 책을 지난 4월24일 한겨레출판(주) 권오진으로부터 발간했다. 나를 비추는 보배로운 인연을 통해 깨어나라! 부모, 가족, 타인, 그리고 나, 관계 속에 숨겨진 삶의 비밀을 우리의 만남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빌면서 또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마음의 지우개를 얻어, 온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1부는 나 자신과의 만남을 다루었으며, 2부는 가족과 만나는 시간, 결국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 자신과 제대로 만나고 부모와의 만남에서 해결

하지 못한 것들을 먼저 풀어야한다. 그 다음 배우자와 지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숨겨진 자신을 살펴봐야 하며, 3부는 마음공부를 쉽고 단순하게 하실분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끝으로 부록에서 마음일기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소생신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신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자”는 범문을 살피셨다.

일체 경계를 거울삼아서 나의 마음을 밝히자는 소식이다. 세상과 인연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이들을 거울삼아 나의 마음을 밝히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마음부터 바꾸는데 있다. 내 삶의 주인 되는 마음 탐험 안내서, 이 책에 해답을 찾기 바란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권도갑(66, 부산, 북야공파, 36世)교무는 국내의 수많은 수행법을 섭렵하고 T-2그룹 훈련 지도자와 아바타 마스터로 활동했으며 사회단체와 마음학교 등에서 마음공부에 대한 안내와 특강을 해왔다. 현재는 30여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은삼 마음일기’를 통해 마음치유사의 길을 걷고 있으며 도반들이 모여 마음공부를 하는 은삼 마음공부방과 1박2일짜리(행복한가족캠프)를 매달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행복을 여는 마음공부」 등 의 다수가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